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무안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3월 21일 코로나 19 전남6번 확진자가 우리 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께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6번 확진자는 우리군 삼향읍 소재 부모님 본가에서 3월18일부터 3월21일까지 머물렀던 43세 남성입니다.

확진자는, 체코에서 2년 반 동안 거주하였고, 지난 3월 17일 프랑스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목포터미널에 도착한 후, 택시로 무안군 삼향읍 소재 본가까지 이동 하였으며, 이동 기간 중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확진자는 본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께 집을 비워주도록 부탁을 하여, 혼자 자가 격리중이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본가에서만 머물렀으며, 20일(금요일) 새벽부터 고열(38.3℃), 기침, 가래, 오한 증상이 나타나자 21일 오전 8시 30분에 1339로 전화하여, 무안군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았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전화상담 후 즉각 대응팀이 선별진료소로 이송하여 진단 검체 채취하여, 당일 12:00경 전남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오후 4시경에 '양성' 판정되어 강진의료원에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이 현지 파견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및 접촉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층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및 상황전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월 21일 오후 5시경 방역차량 5대를 즉시 투입하여 확진자 거주지 및 인접지역 전체를 방역 실시 하였고, 오늘 아침 7시부터 2차 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오후 6시이후 군민들에게 확진자 발생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체 마을방송,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홈페이지에 군민에게 드리는 발표문 및 확진자 이동경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확진자 발생경위, 역학조사 결과, 방역사항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다니고, 우리도 안심하고 일상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2.

무안군수 김 산